

# 석유화학,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

LG정유 노조 탈퇴로 ... 7-8월 파업 후유증으로 갈등 깊어

LG-Caltex정유 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LG정유 노조는 10월29일 오전 여수공장 회의실에서 총대의원 42명 가운데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갖고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했다.

LG정유 노조는 민주노총에 탈퇴서를 제출한 뒤 당분간 한국노총 등 상급기관 가입을 유보한 채 자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와 함께 파업중 노조가 복귀를 결정하기 전에 회사에 복귀한 6명의 대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도 재고기로 결정했다.

LG정유 노조의 탈퇴 결정은 여수산단내 18개 민주노총 소속 대형사업장 노조 가운데 처음이어서 다른 사업장에도 파급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노조원 50여명은 LG정유 여수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LG정유가 일부 대의원들을 사주해 개최한 대의원대회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자진해산했다.

LG정유 노사는 노조원들이 2004년 7월19일 파업과 함께 공장을 이탈해 8월11일 복귀 결정하기까지 갈등을 겪어왔다.

<화학저널 2004/11/01>